

New Leader V.

바닥난 열정,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1. 열정

리더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은 '열정'이다. 열정은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와 같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갈 수 없다. 리더에게 있어서 열정의 고갈은 결국 차를 움직이는 엔진을 멈추게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멜산 전투 후의 엘리야이다.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열정'이 바닥난 모습이다.

[열왕기상 19:3-4] 3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 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 두고, 4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렘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사역과 인생은 그 자리에서 멈춰 버렸다. 조금 전 갈멜산 전투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은 '열정의 화신'이다. 하나님의 일을 '죽으면 죽으리라'의 사명감으로 무장한 모습이다. 이런 엘리야의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열정이 바닥을 보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열정이다. 연료와 같다. 그런데 그 열정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다. 식어질 때가 있다.

(1) 깨끗한 열정, 맑은 열정

타락한 인간을 움직이는 힘은 '욕망'이다. 인간의 욕망을 보라. 끝이 없다. 욕망이라는 연료에게 멈춤은 있을 수 없다. 열정과 욕망을 구분하기 참 어렵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지, 내 욕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욕망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사역의 마차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이다. 성경을 보라.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첨가될 때 하늘의 축복은 멈춘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때부터 그것은 '자기의 일',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전력투구한다. 사울의 나라는 결국 멈췄다. 솔로몬의 통치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제국화된 기독교는 엄청난 확장을 하는 듯했으나, 결국 엄청난 상처만을 남기고 멈춰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정'을 다루신다. 욕망이 열정으로 포장 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하신다. 아끼는 선교사님과의 대화 중 '깨끗한 열정, 맑은 열정'을 위해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그래, 열정은 열정인데 맑은 열정, 깨끗한 열정이 중요해'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열정이라는 연료는 교회의 엔진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왜 열정이 많은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는가? 답은 분명하다. '자기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맑은 열정, 깨끗한 열정'이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맑은 열정이다.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열정이다. 그런데 욕망과 섞이지 않는 맑은 열정이 필요하다.

(2) 두려움

오늘 엘리야의 열정을 식게 한 원인은 3절의 기록처럼 '두려움'이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마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열정을 식게 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두려움의 공간은 어둡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움이 가득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움직일 수도 없다.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면 결국 멈춰 버린다.

* **야곱** - 성경에서 열정의 대명사가 있다. '야곱'이다. 야곱의 열정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복을 향한 야곱의 인생을 보라. 야곱의 이름을 보라.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이다.

[창세기 25:26]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예순 살이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복을 향한 야곱의 열정은 중요하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짓누르는 평생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문제이다. 야곱의 인생은 드라마틱 하다. 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다. 그 어려움을 '열정' 하나로 돌파한 사람이 야곱이다. 그런데 본인의 힘과 열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이 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을 얼마나 짓눌렀는지를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바로 그 장면이 창세기 32-33장에 걸쳐 기록된 에서와의 만남이다.

[창세기 32:6-7] 6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7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 떼와 소 떼와 낙타 떼를 두 패로 나누었다.

인생의 어려운 난관을 열정 하나로 이겨온 야곱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을 보라. 에서의 문제는 야곱 평생에 해결되지 않았던 엄청난 무게의 짐이다. 야곱은 결국 해결할 수 없는, 피하고 싶은 마음의 짐과 두려움 앞에 서게 된다.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나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내 마음에 웅크리고 있다. 그리고 순간의 틈만 보이면 얼굴을 내밀어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한다. 생각을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 순식간에 두려움이라는 블랙홀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다. 기도도 할 수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닥난 열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다.

2. 마음의 짐이 '툭'하고 떨어지는 순간, 약속의 수레바퀴가 움직인다.

(1) 홀로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열정의 야곱을 보라.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이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 두려움은 나에게 온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힘을 쏟을 방법과 전략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홀로의 공간'을 만드신다.

[창세기 32:23-24] 23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24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 야곱의 열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신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신다. 리더는 반드시 '홀로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니엘도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홀로의 공간,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었드렸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마음의 짐, 두려움'을 해결하신다.

(2) 다 부어내다.

하나님은 그 공간에서 다 부어내게 하신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와 같은 기도이다. 야곱은 그곳에서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힘을 다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인가? 하나님께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부어내는 사람이다. 사울을 보라. 마지막 힘을 사람에게, 심지어 무당에게, 다윗을 쫓느라 다 쏟아부었다. 결국 사울의 엔진은 멈춰 버렸다. 예수님을 보라. 마지막 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 쏟아부으셨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나는 때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존으로 내 마음에 거하시는 순간이다. 소나무 뿌리라도 뽑을 심정으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날 때 들리는 소리가 있다.

'툭' - 환도뼈가 빠지는 소리

[창세기 32:25]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야곱의 씨름 마지막은 야곱의 엉덩이뼈가 '툭'하고 빠지는 순간이다. 놀라운 순간이다. '툭'하고 빠져버린 환도뼈의 소리는, 움직이지 않았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바퀴가 움직이는 순간이다. 아무리 커다란 차 여도 바퀴가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된다. 처음이 어려운 것이다. 내 안에 있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짐, 그로 인한 두려움이 단 번에 없어지는 순간이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지만, '툭'하는 그 소리는 내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그 공간에 두려움은 없다. 위로부터 맑은 열정이 부어지는 순간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바퀴가 '툭'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리를 듣게 하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새 힘이 생겨난다', '두려움은 없다',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하다' 비록 야곱은 절뚝거리며 걸어갔지만, 이제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과 복에 완전히 사로잡힌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 하나님이 움직이시다 - 에서의 마음을 얻다.

야곱은 에서를 만난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얻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33:4]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야곱을 만나기 전, 에서의 마음은 이미 야곱을 향해 축복으로 변해있었다. 에서가 달려왔다. 그를 끌어안았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었다. 야곱의 예상과 다른 모습이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 야곱의 열정으로 할 수 없었던 마지막 일은 에서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다. 원수의 마음도 얻는 사람, 야곱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단 번에 이 일을 이루셨다.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야곱의 축복.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 축복이 있어야 한다. 이제 야곱은 축복을 향해 열정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닌,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바닥난 열정' 그곳에서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하신다. 마음의 짐과 두려움의 공간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신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자. 내 인생의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자.